

특 집

금강산 관광 1주년 평가와 과제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성과·윤기관

기업과 정부의 과제·조동호

국제적 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최달룡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적 성과

윤기관 / 충남대학교 교수

'햇볕 정책'의 첫 결실로서의 금강산 관광 사업

김기 계는 27년 전인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 때부터 그리고 가까이는 10년 전인 1989년 1월 현대그룹과 북한의 대성은행간의 '금강산 개발 구상' 합의 때부터 추진해왔던 금강산 관광 사업은 작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가 관광객 826명을 태우고 첫 출항을 한 지 이제 1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위 '햇볕 정책'이 현대라는 민간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하여 실현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대형 자물쇠로 굳게 잠그고 열쇠를 바다에 내던져버려 영원히 열리지 못하게 될 줄만 알았던 북한의 문이 남한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받아 대형 자물쇠가 풀리어 굳게 잠긴 문이 살포시 열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객 1인당 하루 100달러씩의 관광 요금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2005년 3월까지 총 9억 4,200만 달러를 매달 800만~2,500만 달러씩 분할 지

급하고 있다.

지난 80년대말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달아 붕괴함으로써 북한은 주력 시장들을 상실하게 되어 엄청난 충격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말에는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이 현대로부터 엄청난 현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니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이나 연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외채 규모가 121억 달러나 이르고 있는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북한의 현재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3월까지 9.4억 달러를 받게 되었으니 충격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2005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북한 경제의 현실로 보아 다소의 체제·사상 오염을 감수하면서도 수락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치적인 성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치적 성과는 첫째, 상호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 즉, 금강산 관광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직접적으로는 금강산 내에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남북한 전체 국민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 시행 1

주년을 앞두고, 이 사업이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자.

국제 협력에서는 언제나 서로 이득이 되어야 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다른 한쪽만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 협력은 처음 시작부터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협력 과정에서 한 쪽에서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그 협력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북한은 북한측대로 이해득실을 계산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해득실을 계산한 결과,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즉, 남북한은 win-win 협력을 계속 추구해야 이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어떠한 이득(성과)이 있었는가를 음미해보자.

상호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의 초석

현재 남북한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군사비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다. 이 군사비를 감축하여 국가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하고 나머지를 민생 부문에 투여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민족은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팀스피리트 훈련도 하였는데, 그것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한편,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에서의 그러한 불안스러운 존재 사실때문에 군사력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여 언제·어디서·어떠한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는 막중한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현대사람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사람들이 수많은 접촉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북한 장전항에 도착하여 북한 세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금강산의 북한측 안내원과 감시원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지난 50년 동안 서로 불신해왔던 장벽들이 조금씩이나마 녹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직접

둘째, 북한 보수·강경파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있다. 즉,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인해 다소의 체제나 사상의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이너스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현금 수입의 플러스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경·보수파들의 반발을 완화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우리 주변국들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적으로는 금강산 내에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남북한 전체 국민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 보수·강경파들의 반발 완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故김일성 주석의 주변에 있던 혁명1세대들은 현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가 하면, 김정일 총비서 주변에는 김달현 등 개혁·온건파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보수·강경파들과 개혁·온건파들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어느 쪽이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서 남북한 대화도 시도했다가 갑자기 간첩선이나 잠수정을 남파하기도 했던 경험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현재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군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을 보면 개혁·온건파의 목소리가 더 큰 듯 싶다. 게다가 어려운

북한 경제의 현실 하에서 다소의 체제나 사상의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이너스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현금 수입의 플러스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경·보수파들의 반발을 완화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정

우리 주변국들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 증거로서는 관광객들이 내국인에서 외국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은 環동해권의 관광지대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국 경제인들도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아마도 금강산 관광 사업은 우리 남한 사람들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이외의 나라로부터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금강산 관광 사업은 특히 일본인들과 해외 동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경험을 보고 이 정

도면 마음놓고 금강산 관광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는 첫째, 장기적 관점의 민족 기업으로서의 역할로 인한 파급 효과이다. 현대는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족적 사업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면, 얼마가지 않아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갖는 정치·사회·문화 등의 면에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승 작용하여 국내외에서 함께 공동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민족 기업으로서의 역할

현대에는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족적 사업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사업에서 이득이 남지 않는 장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이러한 현재의 적자 상태 하에서는 더 이상 꾸려나갈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엄청난 투자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요구된다면 어느 기업도 선불리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만이 할 수 있는 여건.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 사업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대그룹이 국내외에서 어느 기업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위험성 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민족적 숙원 사업을 정치가들도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민간 기업이 해내

고 있다고 하는 사명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면, 얼마가지 않아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갖는 정치·사회·문화 등의 면에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승 작용하여 국내외에서 함께 공동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광 협력에서 농업 협력으로의 확대

현재 남북한 경제 협력은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협력 사업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협력 사업자 승인' 가운데서 실제로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주)백산의 버섯 재배 사업,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나진·선봉공단 조성 사업, (주)광인의 옥외 광고 사업, (주)녹십자의 평양약품공장 건설 등이 바로 그것이

둘째, 관광 협력에서 농업 협력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현대측은 북한의 조선금강산관광총회사와 공동으로 영농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금강산 온정리 일대에 1만 8,000 평에 비닐 하우스를 조성하여 거기서 야채를 재배하여 (주)현대아산의 금강산사업소와 금강산 관광선에 납품한다는 것이다. 현대가 83만 달러를 투자하여 그 대금은 농산물 납품으로 3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가는 win-win 협력의 하나이다.

다. 겨우 대우그룹의 남포공단에서의 섬유류 제조가 실현되고 있으며,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 등 2건만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음의 요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우선, 북한 내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金正宇 등 대남 경제 협력 인맥들이 대거 숙청되어 남한 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인물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同위원회가 작년 9월 내각 개편때 폐지되었다. 김정일 총비서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외자 유치 실적 부진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확실한 '현금'이 보장되는 대규모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포용 정책'이 오히려 북한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측은 북한의 조선금강산관광총회사와 공동으로 영농 사업을 하

기로 합의하였다. 금강산 온정리 일대에 1만 8,000 평에 비닐 하우스를 조성하여 거기서 야채를 재배하여 (주)현대아산의 금강산사업소와 금강산 관광선에 납품한다는 것이다. 현대가 83만 달러를

투자하여 그 대금은 농산물 납품으로 3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가는 win-win 협력의 하나이다.

결국 남북한 경제 협력에서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은 대우남포공단에서의 제조업 협력이고, 관광 협력에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 남북한 농업 협력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 협력의 실질적인 확산의 계기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인 것이다.

금강산종합관광특구로의 개발 가능성 증대

북한은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더 이상 도외시킬 수 없음을 직감하고, 체제 전복의 부담을 극소화하는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개방의 물꼬를 트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개방화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70년대(제1기 개방화)에는 서구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되 외국 기업의 진출은 허용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80년대(제2기 개방화)에는 제1기의 실패를 거울삼아 외국 자본 및 기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합영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朝朝合營에 그쳐 실패하였다. 현재 90년대(제3기 개방화)에는 제1~2기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였다. 이 지역은 북한 영토밖의 특수지대로 취급하여 자본주의제도를 허용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결국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고수하면서 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하여 50 건이 넘는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해가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손짓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도 외국 기업들이 응해오지 않음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북한이 남한 기업을 배제하고 외국 기업들에게만 제스처를 써 봤지만,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기업이 갖는 '생리'를 이제야 파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업은 봉사나 자선 사업이 아니라 돈을 벌

셋째, 금강산종합관광특구로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는 금강산 일대에 건설 중인 부두, 온정리휴게소, 문화회관, 온천장, 도로 등 시설물의 사용권을 포함하는 독점사업권을 보장해주면, 이 지역을 종합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세계적인 종합관광단지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북한에게는 금강산 사업 연장에 따른 대가를 현재의 수준을 토대로 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지불하겠다는 제의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금강산 지역에서 모든 세금·관세·부과금의 면제, 외화 반출입 및 송금 보장, 유선통신의 설치와 이용, 은행·보험 등 '특구'에 걸맞는 특혜 조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고자 하는 것이 근본임을 이제야 안 것이다. 투자 여건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외국 기업이 들어올리가 만무함을 북한은 이제야 터득한 듯 싶다. 결국 북한은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해올 나라는 결국 남한밖에 없음을 이제야 인식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금강산관광개발독점권을 30 년간으로 연장해주면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현대측 제의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금강산 일대에 건설 중인 부두, 온정리휴게소, 문화회관, 온천장, 도로 등 시설물의 사용권을 포함하는 독점사업권을 보장해주면, 이 지역을 종합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세계적인 종합관광단지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북한에게는 금강산 사업 연장에 따른 대가를 현재의 수준을 토대로 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마지막으로 서해안경제특구의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지(지역) 선정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 '종합경제특구'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발전소 건설, 자동차 조립 공장, 유전 개발 등은 한결같이 북한측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현대측은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인프라를 담당하고, 직접 투자의 대부분은 관심있는 국내외의 기업들을 참여시켜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불하겠다는 제의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금강산 지역에서 모든 세금·관세·부과금의 면제, 외화 반출입 및 송금 보장, 유선통신의 설치와 이용, 은행·보험 등 '특구'에 걸맞는 특혜 조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현재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과가 가져다주고 있는 또 다른 경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서해안경제특구 지정 가능성 증대

금강산 관광 사업의 1차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금강산종합관광특구'로의 개발 가능성에 이어 서해안종합경제특구의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지(지역) 선정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 '종합경제특구'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발전소 건설, 자동차 조립 공장, 유전 개발 등은 한결같이 북한측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현대측은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인프라를 담당하고, 직접 투

자의 대부분은 관심있는 국내외의 기업들을 참여시켜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변수의 가

능성 문제(사업 진행 도중 중단 사태 등), 엄청난 투자 재원 조달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총비서가 이미 확인한 사항으로서 발전소 건설은 지불 보증이 확보되었을 때 투자하도록 하고, 자동차 조립 공장은 시장 수출 할당과 관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건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원 조달은 외자 조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동시에 국내외 참여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해외 로드쇼를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사회·문화적인 성과

금강산은 사실 2 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하루 정도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막대하다. 금강산 관광선의 왕래 횟수가 많아지고, 이미 완공된 휴게소와 공연장,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골프장(2 곳), 스키장(1 곳), 콘도미니엄(2 곳), 해상 호텔(1

곳) 등이 들어서면 1차 계약 기한이 끝나는 2005년에는 경제 논리에 따라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적은 관광 비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가능케 될 것이다.

또한 통천에 비행장이 건설되면 외국인들의 관광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대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 생존시 통천비행장을 건설하여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던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광이라고 한다면, 먹거리·볼거리·놀거리·살거리가 갖추어져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하며, 종합적인 레저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는 먹거리와 살거리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나, 금강산이라는 자연물(볼거리)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연장, 온천장, 스키장, 골프장 그리고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서 속초 → 설악산 → (케이블카) → 금강산 → 평양 → 북경 혹은 설악산 → 금강산 → 원산 → 나진·선봉 → 블라디보스톡 → 캄차카 → 니이카타 → 후쿠오카 → 부산을 잇는 環동해권 관광 상품의 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성과는 첫째, 현재 해상으로 하루 정도가 걸려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큰 금강산 관광이 2005년에 가서 육로를 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관광 비용으로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는 것이다. 또한 통천에 비행장이 건설되면 외국인들의 관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연장, 온천장, 스키장, 골프장, 그리고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서 環동해권 관광 상품의 개발을 구상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와 낙후된 환동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 상품은 이 지역에서 사회·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낙후된 環동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통신·통행·통상이 자유로워야 한다. 관광특구로서 통행이 자유로워야 하며, 통신도 자유로워야 한다.

현재는 금강호에서 비싼 통화료를 내고 차레를 기다려서 유선 국제 전화(서울 → 북경 → 평양 → 원산 → 장진)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휴대 전화가 개설된다면 1차적으로는 관광객들이 편리해지겠지만, 경제 협력에서의 양측간 의사 결정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통신 기술이 북한 전지역에 전파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북한의 통신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신이 자유로워진다면

셋째, 북한 지역에서 휴대 전화가 개설된다면 1차적으로는 관광객들이 편리해지겠지만, 경제 협력에서의 양측간 의사 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통신 기술이 북한에 전파되어 낙후된 북한의 통신체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통신이 자유로워진다면 이산가족간의 대화 등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입구 온정리에 세워진 문화회관을 잘 활용하여 남북한 문화 행사가 교류적 차원에 이루어진다면, 심화된 언어·문화의 이질화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산 가족간의 대화 등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금강산 입구 온정리에 세워진 문화회관에서는 북한의 각종 문화 행사를 직접 관람할 수가 있다. 50 년간이나 격리되어 지내다 보니 언어·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같은 민족이면서 완전히 제3의 국가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는 데 가장 손쉬운 수단은 바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길이다. 아마도 온정리문화회관에서는 북한의 문화 행사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문화 행사도 교류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상호 신뢰 회복의 첩경은 뭐니뭐니해도 서로의 성격, 습관, 언어, 문화, 역사 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금강산 관광 사업의 1차적·초보적 성과는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이제 겨우 1 년을 맞이하면서 정치적·경제적·사회 문화적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 어떤 가

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현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마도 같은 배달민족이라는 사실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구소련이라는 대국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했었는가? 우리가 중국·구소련·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라도 해보았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꿈이나 추측이 아니라 현실로서 눈 앞에 전개되고 있음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고상한 노래를 한 곡조 뽑을 때 부르는 노래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운 금강산' 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 과연 금강산' 이구나 하고 감탄을 연발할 줄이야 상상이나 했는가? 그러한 금강산을 우리는 이제 자유스럽게 볼 수 있

는 시대가 되었다.

비록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북한을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계기로 하여 평양도 가보고 싶고, 중국을 경유해서 백두산을 갈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 땅을 밟고 오를 수 있는 날도 이제 꿈이 아

나라 현실로 전개되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꿈을 현실로서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바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이룩해 놓은 금강산 관광인 것이다.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앞서 생각해보았던 여러 가지 파급 효과(성과)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그 수많은 정치·경제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한 '관광'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매개체일 뿐이며, '관광'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한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불신의 벽을 허물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 협력은 모두가 궁극

금강산 관광 사업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치·경제적 과제들이 너무 많다. 그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첫째,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한 '관광'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매개체일 뿐이며, '관광'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한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불신의 벽을 허물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 서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간 '경제 협력'은 호혜적이고 쌍방적이어야 실현될 수도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win-win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적으로는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 서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간 '경제 협력'은 호혜적이고 쌍방적이어야 실현될 수도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win-win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남아야 하고, 국가는 국가적 이익과 통치 이념에 부합되어야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남북한 경제 협력은 모두가 상호 이익이 되어야 실현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셋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 생활에서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지 거역하게 되면 마찰이 생겨 싸

셋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보듯이 남북한 경제 협력은 철저하게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 운운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억지로 이루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통일이 된 것처럼 방자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아직도 IMF관리체제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IMF관리체제가 끝난 것처럼 방자한 마음과 행동을 벌여서는 안된다.

우게 된다. 하물며 금강산 내에서 담배 피우지 말 것, 아무 데나 휴지를 버리지 말 것, 함부로 사진 찍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이런 것들은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할 시민 의식이 아닌가? 당시 금강산 관광이 일시 중단되었던 경우는 북한 내에서 일시적으로 강경·보수파와 온건·개혁파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관광객들의 분별없는 행동이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는 점도 반성해보아야 한다.

넷째,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 보듯이 남북한 경제 협력은 철저하게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 운운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억지로 이루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왜 하고자 하는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잘 살고 싶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든 물자든 자동차든 통신이든 남북한간에 왕래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체제가 달라서 불편스럽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체제로 통일시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경제적 통일에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통일이 된 것처럼 방자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아직도 IMF관리체제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IMF관리체제가 끝난 것처럼 방자한 마음과 행동을 벌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불행하지만 엄연한(?) 분단 국가이며, 북한은 지금도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남한의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9월